

## 설화 <우렁색시>와 웹소설 <내 남편과 결혼해줘>의 서사 비교를 통해 본 ‘두 번째 결연’의 서사적 의미\*

김정희\*\*

### <차례>

1. 서론
2. 설화 <우렁색시>와 웹소설 <내 남편과 결혼해줘>의 서사 비교
3. ‘두 번째 결연’에 대한 서사적 의미의 차이
4. 결론

### <국문초록>

이 글에서는 설화 <우렁색시>와 웹소설 <내 남편과 결혼해줘>를 비교하여 서사적 상동성을 탐색하고, 큰 틀을 공유하면서도 도달하는 서사적 의미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보고자 하였다. 두 작품의 서사는 평범한 남자와 아름다운 여자, 비범한 남자가 등장한다는 점, 아름다운 여자가 평범한 남자의 아내가 된다는 점(첫 번째 결연), 아름다운 여자가 평범한 남자와 헤어지고 비범한 남자의 아내가 된다는 점(두 번째 결연)이 공통적이다. 그리고 그 과정은 (1)여자와 평범한 남자의 만남, (2)여자와 평범한 남자의 탐색, (3)여자와 평범한 남자의 결연, (4)여자와 시어머니, 여자와 남편의 갈등, (5)여자와 비범한 남자의 만남과 결연, (6)여자와 평범한 남자의 이별, 여자와 비범한 남자의 결연 확정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처럼 설화 <우렁색시>와 웹소설 <내 남편과 결혼해줘>는 관계의 구도와 서사 구조에서 상동성을 발견할 수 있는데, 두 작품이 도달하는 서사적 의미는 상반된다. 설화 <우렁색시>는 평범한 부부가 권력자의 탐욕으로 인해 원치 않는 이별을 하게 되는 ‘관탈민녀’형의 비극적 서사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이 작품이 노총각의 관점으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1S1A5B5A16078146)

\*\* 한국항공대학교 인문자연학부 강사

로 전개된다는 점, 노총각과 우렁색시의 갈등보다 원님이 우렁색시를 데려간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면 도달하게 되는 서사적 의미이다. 그런데 주안점으로 삼는 인물의 입장을 우렁색시에게 맞추면, 원님의 아내가 된 우렁색시가 그 삶을 노총각과는 다른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볼 수 있다. 이는 결말의 서사적 의미에 대해 우렁색시의 입장이 노총각과는 다를 수 있음을 짐작하게 하는 단서를 제공한다. 이 부분에 두 번째 결연으로 맺어진 남편에 대한 우렁색시의 태도가 잠재되어 있다고 보면, 이 서사가 비극인가에 대해 다른 평가를 내릴 여지가 생기는 것이다.

<우렁색시>에서는 감추고 있는 행복에 대한 단서는 웹소설 <내 남편과 결혼해줘>에서 여자와 두 번째 남편의 '사랑'과 두 번째 남편 덕분에 삶의 고단함에서 벗어나 비로소 찾게 되는 행복 등이 서사화되며 실재하는 가능성으로 드러난다. 또한 소설 <내 남편과 결혼해줘>의 서사는 수동적이던 여성 인물이 스스로 주체성을 회복하도록 구성한다. 여성 인물을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절실하게 깨닫고, 스스로의 행복을 기획하고 성취하는 진취적 인물로 변모시키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두 번째 결연'은 여자가 자신의 소망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결과라 볼 수 있다.

**주제어** 서사 비교, <우렁색시>, <내 남편과 결혼해줘>, 서사적 의미, 두 번째 결연

## 1. 서론

고전 연구자로서, 일상 곳곳에 드러나는 고전서사의 흔적에 관심을 갖게 된다. 전용 플랫폼이 등장하며 작품 공급의 문턱이 낮아졌고, 웹소설이나 웹툰 등, 디지털 문학 활동이 활성화되면서 시중에 유통되는 작품의 수가 많아졌다.<sup>1)</sup> 이러한 웹 콘텐츠 산업의 양적 성장으로 작품에 동원되는 소재

1) 웹소설 시장의 성장세와 규모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2022 웹소설 산업 현황 실태(2021년 기준)'를 조사한 결과 웹소설 분야 산업 규모는 약 1조390억원으로, 2020년(6400억원)도 대비 62% 성장한 것으로

나 내용 또한 다양해지면서 다른 미디어에서 비교적 한산했던 고전서사의 차용 내지 변용도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여전히 특정 작품들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창작 및 향유의 현장에서 고전서사를 현대의 관심사에 부합하게 재단하고 이해하려는 시도가 다양해진 것은 반가운 일이다.<sup>2)</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고전서사'가 향유되던 당대에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날카로운 성찰을 전하며, 현실의 고단함을 잊게 하는 재미를 주는 등 대중에 미치는 영향력과 호소력이 영광스러운 과거에 비해 미진하다는 것 또한 현실이다. '고전서사'가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이야기여서 그런가 하면, 고전 연구자들은 이에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다. '고전서사'는 단지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며, 어떤 방식으로든 인간 보편의 문제에 닿아 있기 때문에 세월에 마모되지 않는 고유의 빛이 있다. 선비가 등장하고, 기생이 등장하고, 과부가 등장한다는 점에 주목하면 낯설지만, 이 군상들을 통해 펼쳐내는 이야기에는 오늘날의 인간과 삶에 대한 문제들을 감당하기에 충분히 깊고 넓은 세계가 담겨 있다. '고전서사'는 당대의 이야기이면서, 보편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현대서사도 마찬가지이다. 고전과 현대의 서사는 인간 보편의 이야기라는 공통점이 있다. 문학 작품

---

나타났다고 한 기사를 참조할 수 있다. 두정아, "웹소설 산업 규모 1조 390억원. 이용자 수 587만 명", <뉴스저널리즘>, <https://www.miricanvas.com/ko/templates>, 접속일자 : 2024.06.20.

2) 이와 관련한 연구로는 정혜경, 이명현의 연구를 참조할 수 있다. 정혜경, 「고전서사를 활용한 콘텐츠 동향과 기획」, 『우리문학연구』 57, 우리문학연구회, 2018, 119~159쪽; 이명현, 「웹툰의 고전서사 수용과 변주」, 『동아시아고대학』 52, 동아시아고대학회, 2018, 107~134쪽; 이명현, 「고전서사의 경계 확장 and 요괴 서사-웹툰에 나타난 요괴의 컨버전스를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47, 경희대 인문학연구원, 2021, 45~70쪽. 다 거론하지 못했으나, 현대적 관점에서 고전서사를 수용하고 변용하는 시도들에 대해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이와 관련한 연구사 맥락은, 이명현, 「고전문학과 문화콘텐츠의 접점과 횡단」, 『고전과 해석』 39, 고전문학한문학회, 2023, 7~32쪽을 참조하였다.

에는 어떤 시대에 창작되고 향유되었던 인간과 삶에 대해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진다. 이 글에서는 과거에도 중요했고, 오늘날에도 중요한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점을 고전서사와 현대서사의 비교를 통해 천착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고전서사의 현대적 변용과 관련한 논의들을 참조하게 된다. 이 글은 과거에서 현대로 이어지는 서사의 원형 또는 전형 등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려 한 여러 연구들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이다. 선행 연구에서는 고전서사가 오늘날 어떻게 향유되고 있는가를 탐구하는 연구의 유형을 크게 둘로 나누고 있다. 문화원형으로서의 가치나 의의를 찾는 연구와 고전서사를 콘텐츠로 활용한 실례를 분석하는 연구가 이에 해당한다.<sup>3)</sup> 이 분류는 고전서사의 현대적 의의를 탐구해온 연구들의 맥락을 가늠하는 데 유용하다. 이 연구 또한 이 가운데 문화원형 연구에 배속된다 할 수 있다. 다만 기왕의 문화원형 연구는 주로 현대 작품이 모티브로 삼은 고전 작품을 얼마나 닮아있는가에 관심을 두고 논의를 개진해왔는데, 본 연구는 겉보기에는 관련성을 짐작하기 어려운 두 작품을 짝으로 맞추어보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본고의 연구 대상인 설화 <우렁색시>와 웹소설 <내 남편과 결혼해 줘>는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에서는 관련성을 포착하기 어렵다. 그러나 서사가 핵심으로 삼는 중요한 삶의 문제와 이를 펼쳐내는 서사 구조, 인물의 속성과 행동 방식 등에서 상통하는 지점들을 발견할 수 있다.<sup>4)</sup> 이러한 분석은 서사를 인간관계에 얽힌 이야기로 파악하는 문학치료학의 서사이론에 기반을 둔 것이다.<sup>5)</sup> 즉, 이 글에서는 이러한 관점에

3) 이명현(2023), 위의 논문, 13쪽.

4) 웹소설을 국문장편소설과 비교하면 서사 구조와 문법의 차원에서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연구도 이루어진 바 있다. 작품의 표면보다 내재된 서사적 요인에 천착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동궤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김은일, 「국문장편소설과 로맨스 웹소설의 유사성」, 『한국고전연구』 64, 한국고전연구학회, 2024, 301~335쪽.

5) 문학치료학의 서사이론의 특징은 서사를 인간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그

입각하여 두 작품이 시대와 장르는 다르지만, 특히 '남녀관계'의 문제와 변화의 한 국면에 대한 서사적 의미에 상동성이 있음을 밝혀보고자 한다.

본고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은 설화 <우렁색시>의 선행 연구는 각편들의 세부 유형에 대한 연구와, 관계의 문제에 대한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설화 <우렁색시>의 하위 유형은 우렁색시가 첫 번째 남편과 헤어지는 비극적 결말로 끝나는 유형과 우렁색시가 첫 번째 남편과 위기를 극복하고 잘 사는 행복한 결말로 끝나는 유형으로 나뉜다.<sup>6)</sup> 여기에서 어떤 모티프가 나타나는가에 주목하여 하위 유형을 더 세분화하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우렁색시>의 여러 유형 가운데, '비극형'으로 명명된 유형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이 유형이 다른 모티프와 결합하지 않은 <우렁색시>의 핵심을 담고 있다고 보았다.<sup>7)</sup>

이와 더불어 설화 <우렁색시>를 남녀관계, 특히 부부 관계의 문제로 읽으려는 연구 또한 이루어져 왔다.<sup>8)</sup> 이러한 연구는 설화 <우렁색시>가

---

문제는 어떤 지점에서 발생해서 어떻게 변화해나가는지에 관한 인과로 이루어져있다고 파악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그간 문학치료학에서는 장르와 시대가 다른 작품들의 상동성을 탐구하는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현대의 영화와 신화 또는 설화, 소설과 설화, 시와 설화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과거의 서사가 오늘날의 서사와 어떻게 조우하는가와 관련한 문제에 천착해왔다. 관련 논의가 상당하여 대표적인 연구로 연구사를 갈음하고자 한다. 정운채, 「<단군신화>의 운녀를 통해 본 <누드모델>의 마리안느」, 『영화와문학치료연구』 4, 서사와문학치료연구소, 2010, 329~345쪽.

- 6) 설화 <우렁색시>의 하위 유형에 대한 연구는, 이수자, 「<우렁색시>형 설화의 연구 - 변이양상을 중심으로 -」, 『이화어문논집』 7, 이화어문학회, 1984; 김군데, 「<우렁이 색시> 각편의 유형과 의미」, 『문학치료연구』 14, 한국문학치료학회, 2010; 이성희, 「비극형 우렁색시 설화의 전설적 특성과 현실 인식」, 『구비문학연구』 64, 한국구비문학학회, 2022; 현영희, 「한중 <우렁가시> 유형 설화의 현대 매체 변용 양상과 특성」, 『중국문화연구』 62, 중국문화연구학회, 2023. 등이 있다.
- 7) 비극형의 내용은 2장에 정리한 줄거리로 대신한다.
- 8) 이성희, 「<수탉이 된 나무꾼>과 <새 변신형 우렁색시>의 부부서사 비교 연구」, 『문학치료연구』 65, 한국문학치료학회, 2022; 이동희, 「<우렁색시>의 문학치료적 해석: 설화의 현대적 변용에 나타난 남녀관계 형성의 의미를 중심으로」, 『독서치료연구』

현대인의 문제를 짚어내는 데 적합한 전형성을 간직하고 있다는 전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현대인의 부부 관계에 대한 고민과 설화 <우렁색시>에서 추출할 수 있는 부부 관계의 고민이 맞닿아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는 본고의 문제의식과 상통한다.

앞서 언급한 연구의 목적과 의의를 간추려보면, 본고에서는 설화 <우렁색시>를 통해 고민해 온 삶의 문제가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이 문제에 대해 오늘날에는 어떠한 답을 내놓고 있는지 서사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고 정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우렁색시>와 웹소설 <내 남편과 결혼해줘(이하 내남결)>의 서사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웹소설 <내남결>은 웹툰으로 그려지고, 드라마로 제작되며 흥행작으로 주목받았다.<sup>9)</sup> 동명의 작품이 웹툰과 드라마도 있지만, 각 작품마다 서사적 차이가 나타나기에 본고에서는 다른 작품들의 원작인 웹소설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음을 밝힌다. 애초에는 이 작품이 흥행작이어서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살펴보니 설화 <우렁색시>와의 관련성이 크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우선 두 작품은 노총각-우렁색시-원님의 관계가 소설에서 민환(노총각)-우렁색시(지원)-지혁(원님)의 관계 구도에서 상동성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평범한 남자의 표상인 노총각과 비범한 남자의 표상인 원님의 대비, 우렁색시(지원)의 아름다운 외모와 ‘껍데기 속에 숨어’ 자신을 감추는 자기 은폐적 태도 등이 나타난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렁색시가 노총각과 첫 번째 결연을 이루어 살다가 헤어지고, 원님과 두 번째 결연을 이루어 산다는 흐름에 상동성이 있다. 이는 서사 구조로도 나타나는데, 이와 관련한 논의는 2장에서 두 작품을

7(1), 한국독서치료학회, 2015; 서은아, 「현대 고부갈등 해결을 위한 <우렁색시>의 문학치료적 가능성 탐색 : 영화 <올가미>, mbc <현장기록: 사람잡은 시집살이>와의 비교를 통하여」, 『국어교육』 121, 한국어교육학회, 2006.

9) 성소작, 『내 남편과 결혼해줘』 총 188화, 출판사 Ara.N, 연재 기간: 2020.02.04. ~ 2021.10.26. 네이버 시리즈 제공.

비교하며 상세하게 다루고자 한다.

이러한 서사 비교를 통해 설화 <우렁색시>의 첫 번째 결연과 두 번째 결연에 대해 현대 작품은 어떠한 평가를 하고 있는가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부와 힘을 겸비한 비범한 남자(두 번째 남자)는 서사에서 '악역'을 담당할 수밖에 없는가 대해 고민해보고, '노총각'을 중심으로 보면 비극이지만 '우렁색시'를 중심으로 보았을 때도 그러한가에 대해서도 탐구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3장에서 상세하게 다루어보고자 한다.

## 2. 설화 <우렁색시>와 웹소설 <내 남편과 결혼해줘>의 서사 비교

논의를 위해 설화 <우렁색시>의 줄거리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sup>10)</sup>

(1) 흠어머니와 사는 노총각이 있었다. (2)노총각이 농사일을 하며 농사를 지어도 같이 먹을 색시가 없다고 푸념을 했다. 그러자 “누구하고 먹고 살이? 나하고 먹고 살지.”라고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다. 노총각은 소리가 나는 곳에서 우렁이를 발견하고 집으로 데려왔다. (3)그런데 그날부터 노총각이 나갔다 돌아오면 밥상이 차려져 있었다. 노총각은 누가 차려놓는지 궁금하여 숨어서 지켜보다가 우렁이가 색시로 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노총각은 색시를 붙잡아 같이 살자고 했는데, 색시는 때가 아니라며 거절했다. 노총각은 그래도 같이 살자고 졸라 우렁색시를 아내로 맞이하였다. (4)그러던 어느 날, 노총각이 일하러 나가자 노총각의 어머니가 우렁색시에게 밥을 해서 가져다주라고 하였다. 우렁색시는 밥을 해서 길을 나섰다. (5)우렁색시는 가는 길에 원님이 행차하는 소리를 듣고 가시덤불 뒤에 숨었다. 원님은 우렁색시의 몸에서 비치는 서기를 추적하여

10) 유조숙(여, 75), <우렁 각시>, 『한국구비문학대계』 4-6, 192~196쪽. 본고에서는 기본형의 내용이 담긴 이 각편을 참고로 하여 기본 줄거리를 정리하였다.

숨어 있는 우렁색시를 발견하였다. (6)원님은 우렁색시를 가마에 태워 집으로 데리고 갔다. (7)집으로 돌아온 노총각은 색시가 없어진 것을 알고 몸부림을 치며 울다 죽어 버렸다. (8)죽은 총각의 혼이 새가 되어 원님의 색시가 된 우렁색시의 걸으로 날아갔다. 원님은 담뱃대로 새를 때려잡았고, 색시는 죽은 새를 잘 물어 주었다.

이 서사는 노총각, 우렁색시, 원님의 관계 변화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서사의 주된 흐름은 노총각과 우렁색시가 부부로 사는데, 원님이 우렁색시를 데려가 아내로 맞이한다는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다. 노총각은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평범한 청년이다. 그리고 노총각은 생계를 위해 성실하게 일을 하며 지내면서 배우자를 맞아들여 가정을 일구는 일에 관심을 갖는다. 평범한 청년의 이러한 고민은 시대를 관통한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사회인으로서 일을 하며 지내다 보면, 자연스럽게 결혼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과거와 오늘날의 구체적인 생활 양상은 다를지라도, 스스로 생계를 꾸려나가게 된 청년이 하게 되는 삶의 고민은 다르지 않다. 이처럼 노총각에 오늘날 평범한 청년의 군상은 어렵지 않게 겹쳐진다.

이처럼 노총각의 ‘푸념’은 청년들의 보편적인 고민과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푸념은 사람을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결혼’이라는 인생의 과업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상황에 대한 신세한탄이다. 즉, 이때의 노총각에게 배우자로 삼고 싶을 만큼 호감이 가는 상대는 아직 나타나지 않은 상태인 것이다. 이 태도는 우렁색시의 본모습을 확인하게 될 때까지 견지되고 있다. 즉, 결혼에 대한 의지는 있으나 배우자로 삼고 싶은 상대는 만나지 못한 상태가 계속되는 것이다. 총각은 우렁색시가 ‘나랑 먹고 살지’라고 대답하자 집으로 데려가기는 하지만, 이를 우렁색시에 대해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대목에서 노총각이 우렁이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 것인지 살펴보면, 일터에서 만난 우렁이를

자신의 영역 안으로 들었다는 점에서 관계의 거리를 좁히기는 했지만, 아직은 우렁이를 그저 우렁이로 바라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노총각과 우렁색시의 관계를 고려하면 이때부터 이성적 탐색은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노총각이 우렁이를 집 가까이에서 두었다는 것은 우렁색시에게 어느 정도의 이성적 호감을 표하기는 했으나, 아직 그 호감에 열정이 깃들지는 않아서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고자 하는 의지는 없는 상태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되다가 노총각이 우렁색시를 배우자감으로 보게 되면서 관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일어난다. 노총각의 영역으로 자리를 옮겨간 우렁색시는 노총각의 식사를 챙기는 등 살뜰히 보살피기 시작한다. 그러나 노총각은 살뜰한 보살핌을 받으면서도 영문을 모른 채 어리둥절한 모습을 보인다. 노총각이 누가 하는 일인지 예상하지 못하는 것은 우렁색시의 보살핌이 상호적인 것이 아닌, 일방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노총각이 우렁색시에게 잘해주었거나, 호감을 보였거나, 미래를 약속했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계 보상이라고 볼 수 없고, 우렁색시에게 마땅히 그 래야 하는 관계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우렁색시는 마치 '아내'처럼 노총각의 생활을 돌보고 있다. 다시 말해서 노총각은 '우렁이'에게 이토록 극진한 보살핌을 받을 만큼 잘해준 일이 없기에 '우렁이'가 한 일이라 쉬이 짐작하지 못하며, '우렁이'는 상대의 영역에 들어갔다는 것만으로 관계의 밀도와 무관하게 지나친 친절을 베풀고 있는 셈인 것이다. 이처럼 노총각과 우렁색시가 상대에 대한 호감을 표하는 방식과 온도의 차이는 크다.

이때까지도 노총각은 우렁색시를 배우자감으로 대하지 않는다. 노총각이 우렁색시를 배우자로 대하게 되는 시점은 우렁색시의 외적 매력을 발견하고부터라 할 수 있다. 즉, 노총각은 우렁색시가 자신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헌신적으로 내조할 뿐 아니라 외적 매력까지 겸비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면서 우렁색시를 배우자로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결정 역시 일방적이다. 노총각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우렁색시에게 더 기다릴 수 없다고 하며 결혼을 강요한다. 이처럼 노총각과 우렁색시는 서로에 대한 탐색과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결연에 이르게 된다.

반면 노총각과의 결연 과정에서 우렁색시가 보이는 태도의 특징은 세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우렁색시는 사회적 고립 상태에 놓여 있는데, 스스로 이 상태를 고착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서사에서 우렁색시는 단단한 껍데기 속에 숨어 세상과 단절되어 살아가는 존재이다. 그런데 노총각이 ‘누구랑 먹고 살지’라고 하며 상대를 특정하지 않고 발신한 메시지에 ‘나랑 먹고 살지’라고 응답한다. 노총각은 그야말로 ‘누구’여도 상관없다는 것이지만, 우렁색시는 ‘내가 여기에 있다’고 반응한다.

노총각의 고민이 무엇인지 짚어보면, 이 답신에 담긴 우렁색시의 내면을 짐작해볼 수 있다. 노총각의 메시지에는 누구든 함께 할 존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투영되어 있고, ‘함께’가 필요한 이유는 혼자여서 외롭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렁색시가 그 메시지에 반응한다는 것은 우렁색시 역시 ‘함께’하는 것에 대한 소망, 즉, 누군가와 만나 더 이상 외롭지 않고 싶다는 소망을 품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우렁색시는 이러한 소망을 품고 있으면서도 소망을 이루기 어려운 삶의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스스로 껍데기에서 나올 수 있으면서도, 그 속에 숨어 살며 자기를 은폐한다.

우렁색시가 보이는 두 번째 특징은 관계를 양가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이다. 우렁색시가 노총각에게 헌신하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를 노총각에 대한 적극적인 애정의 표현이고 관계에 대한 확신이라고 오해하기 쉽지만 이는 노총각을 대하는 태도의 일면으로 볼 수 있다. 우렁색시는 여전히 우렁이 껍데기를 쓰고 숨어 노총각에게 본모습을 보이는 것을 꺼리며 관계에

거리를 두고 있다. 이는 노총각과의 관계에서 안정감을 느끼지 못해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의지의 발로라고 읽을 수 있다. 이처럼 우렁색시에게 껌 데기는 연약한 속내를 감출 수 있는 은신처이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기도 하다. 그리고 우렁색시는 관계가 깊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기를 보호하는 것을 더 중요시한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 그럼에도 노총각은 우렁색시가 외로움을 드러낼 수 있었던 유일한 창구이다. 뿐만 아니라 노총각이 무심하기는 해도 자기 영역 안으로 우렁색시를 들여놓는다. 그래서 다소 영성하기는 해도 우렁색시에게는 유일하고 특별한 관계가 형성된다. 그래서 우렁색시는 노총각과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관계 보상을 남발한다. 노총각은 우렁색시를 중요한 관계로 인식하지 않고 그에 상응하는 대우도 하지 않는데, 우렁색시는 노총각을 헌신적으로 돌본다. 노총각은 받기만 하고, 우렁색시는 주기만 하는 관계가 계속된다. 이는 우렁색시가 노총각을 대하는 태도가 지나치게 헌신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헌신적인 태도를 보여 노총각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지만, 정작 노총각과의 관계를 지속해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다음의 국면에서 드러난다. 우렁색시는 자신을 붙잡는 노총각에게 '때가 안 되었다'며 뿌리치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 역시 우렁색시의 모순적 태도와 관련된다. 알아주기를 기대했다면 반겨야 할 텐데, 우렁색시는 난색을 표한다. 여기에서 노총각에 대한 우렁색시의 태도가 이중적임을 다시 한번 드러낸다. 그리고 이에 대한 우렁색시의 반응에서 하나 더 포착할 수 있는 특징은 우렁색시가 노총각의 요구에 대한 거부를 끝까지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우렁색시의 태도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세 번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관계의 주체로서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상대의 요구에 휩쓸리는 피동적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다.

노총각과 우렁색시는 이러한 불협화음을 조율하지 못한 채 부부로 거듭

난다. 그러나 이 부부 관계는 시작부터 불안정한 상태라 할 수 있다. 우렁색시의 요구와 노총각의 요구가 상충되는 상황에서 관계를 이루려는 노총각의 요구만 관철되면서 관계에서 적당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자 했던 우렁색시의 소망은 존중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우렁색시는 노총각과의 관계를 이어나가도 좋을지에 대해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노총각과 부부가 된 것이다. 우렁색시에게는 꺼림칙함이 남기 때문에 이 부부 관계는 이 관계의 성사를 바란 노총각에게만 좋은 관계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노총각은 우렁색시와의 관계에서 자기가 얻을 수 있는 이익만을 추구한다. 이는 노총각의 어머니와 우렁색시의 관계에 대해 노총각이 취하는 태도에서도 감지된다. 시어머니는 자신이 해오던 일을 우렁색시에게 미룬다. 물론 그 일이 어려운 일은 아니다. 그런데 우렁색시가 할 수 없는 일을 한 것인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 아닌가는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 핵심은 우렁색시가 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또한 ‘누룽밥을 독차지하고 싶어서<sup>11)</sup>’ 며느리를 대신 보내는 시어머니의 행동에서 자녀를 사랑으로 대하는 부모의 마음은 찾아볼 수 없다. 이처럼 관계의 위계를 이용하여 아랫사람에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미루며 자신은 이득을 취하는 시어머니의 행동은 횡포에 가깝다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우렁색시는 시어머니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노총각은 이를 바로잡으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sup>12)</sup> 즉, 어머니와 우렁색시의 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중재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노총각이

11) 김판례(여, 73), <우렁 색시>, 『한국구비문학대계』 5-7, 191~193쪽; 유조숙(여, 75), <우렁 각시>, 『한국구비문학대계』 4-6, 192~196쪽; 박옥염(여, 75), <우렁 색시(1)>, 『한국구비문학대계』 5-2, 163~165쪽; 박성예(여, 86), <참빚이 된 우렁이 처녀>, 『한국구비문학대계』 5-2, 536~538쪽; <우렁이에서 나온 각시>, 『한국구전설화』 전라북도편 1 임석재전집7, 평민사, 1988, 191~194쪽. 등에서 나타난다.

12) 노총각이 어머니에게 직접 가져다 달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이는 각편도 있지만,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각편의 수가 많지 않고,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중재를 위한 적극적인 행동으로 보기는 어렵다. 유조숙(여, 75), 위의 각편.

어머니와 우렁색시의 갈등을 목도하면서도 이를 우렁색시의 문제, 어머니의 문제로 미루고 자신은 그 문제에 대한 주변인 또는 방관자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우렁색시는 집에 머물지 못하고 밖으로 내몰리게 된다. 그러나 이는 우렁색시에게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고, 노총각에게는 불행의 단초가 된다. 집 밖으로 나간 우렁색시가 원님의 눈에 띄기 때문이다. 원님의 등장으로 인해 우렁색시와 노총각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원님은 우렁색시의 매력에 매료되어 다가간다. 원님을 마주친 우렁색시는 덤불에 숨어 몸을 감추려 하는 행동을 하는데, 이는 이전의 행동 방식을 반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우렁색시는 조심성이 많고,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을지 스스로 확신이 들 때까지 충분히 시간을 들여 지켜보려는 판단 지연의 태도를 보인다.

그런데 우렁색시가 이런 태도를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렁색시와 인연을 맺고자 하는 상대가 다가오지 않으면 관계는 이루어질 수 없다. 그래서 노총각도, 원님도, 우렁색시의 입장에서는 한결같이 기다려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다가오는 상대이다. 이처럼 노총각이나 원님이 우렁색시를 대하는 태도는 일방적이라는 맥락에서 동일한 측면이 있다. 그렇다면 원님과의 관계 역시 우렁색시에게는 심리적 부담이 큰 관계일까? 이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답할 수 있다. 우렁색시는 자신의 마음속에 감추어둔 껍데기에 숨은 것처럼, 원님에 대한 마음이나 노총각에 대한 마음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원님이 우렁색시를 대하는 태도는 노총각과 확연히 구분되는 지점이 있다. 노총각이 우렁색시를 배우자로 선택한 데에는 우렁색시의 헌신적 태도와 우렁색시의 이성적 매력에 대한 고려가 반영된다. 바꾸어 말하면, 노총각은 상대가 자기에게 무엇을 해주고, 어떻게 대하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여기에는 자기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태도가 내재해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원님은 우렁색시의 이성적 매력을 구애의 가장 중요한 동인으로 삼는다. 노총각과 달리 상대가 자기에게 무엇을 해주는가는 고려할 조건이 되지 않는다. 그보다 상대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모습, 존재 자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분위기를 우선하는데, 이는 상대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는 상대를 귀하게 여기는 태도가 내재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렁색시를 대하는 이러한 태도의 차이와 우렁색시가 종국에 원님의 곁을 떠나지 않고 자리를 잡는다는 것을 염두 하면, 원님에 대한 우렁색시의 태도는 우호적이라고 추론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서시는 노총각의 관점에서 시작하고 끝을 맺고 있으므로, 뒷부분에는 우렁색시가 원님의 아내가 되고 난 후, 혼자 남겨진 노총각의 울분이 나타난다. 노총각과 원님은 우렁색시의 배우자 자리를 두고 대립하는 관계이다. 원님이 우렁색시를 데려가면서 노총각은 원님의 도발에 응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그러나 노총각은 이 경쟁에서 전의를 상실한다. 원님과 우렁색시의 결연을 알게 된 노총각이 죽는다는 것은 이 상황에 압도당하는 상태에 이른다는 것을 의미하며, 새가 된다는 것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아무런 시도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상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노총각은 이 상황에 대한 자신의 입장과 우렁색시를 되찾으려는 의지를 보여야 하는 상황에서 대결을 포기하는 무기력감과 어머니에 대한 원망을 드러낸다. 이러한 대응 방식은 노총각의 고유한 특징이다. 왜냐하면 동일한 상황에서 낮은 신분이나 능력의 부족,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을 드러내기보다 대결에 이기려는 태도로 진지하게 임하는 첫 번째 남편이 등장하는 작품들이 있기 때문이다.<sup>13)</sup> 노총각이 포기의 태도를 드러내기

13) 대표적인 작품으로 <새털옷 입고 왕이 된 남자>를 들 수 있다. 본고의 논의와는 주안점이 다른 논의이기 때문에 생략하지만, 이 상황에서 첫 번째 남편의 실패는 필연적인 것이 아니다. 대결해야 하는 상대가 아무리 높은 신분을 가졌다 해도, 마음

전에는 관계에 변화의 여지가 남아 있으나, 노총각이 울분을 토로하는 데 그치면서 오히려 우렁색시와 원님의 관계가 공고해지는 역설적 상황이 된다.

여기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줄거리 정리를 기준으로, (1), (2)번은 노총각과 우렁색시의 만남, (3)번은 노총각과 우렁색시의 상호 탐색과 결연 (4)번은 우렁색시와 시어머니와의 갈등, (5)번은 원님과 우렁색시의 만남, (6)번은 원님과 우렁색시의 결연, (7), (8)번은 노총각과 우렁색시의 이별, 이에 대한 노총각의 원망과 분노의 표출과 관련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웹소설 <내 남편과 결혼해줘>의 서사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다음은 논의를 위해 웹소설 <내남결>의 줄거리를 정리한 것이다.

(1) 37살의 강지원은 딸기 암 환자로 병원에 입원해있으면서 병원비를 내지 못하는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집에 들렀다가 남편의 불륜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다. 지원이 화를 내자 남편은 오히려 폭력을 행사했고, 이로 인해 지원은 죽음을 맞이한다. (2) 다시 눈을 뜬 강지원은 자신이 민환과 결혼하기 전, 직장내 연애를 하던 시절로 회귀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3) 첫 번째 인생에서 지원을 괴롭게 한 것은 남편 박민환과 시어머니, 그리고 친구 수민이었다.<sup>14)</sup> (4) 지원은 홀아버지 밑에서 자라다가, 홀아버지마저 병으로 잃어 고아가 되었다. 그리고 학창시절 따돌림을 당한 후로 사회로 나가서까지 외톨이로 지낸 지 오래였다. (5) 지원은 직장에서 선배 박민환을 만나게 되었다. 민환은 지원에게 관심을 보이는 유일한 사람이었고, 결국 지원은 민환에게 마음

---

을 얻어야 하는 여자를 웃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남자가 되면 그 관계는 회복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한 논의를 참고할 만한 논문으로는, 김정희, 「남녀관계의 위기와 지속에 대한 서사지도 구축과 문학치료 활용 연구」 등이 있다. 김정희, 「남녀관계의 위기와 지속에 대한 서사지도 구축과 문학치료 활용 연구」, 건국대 박사학위논문, 2018, 1~319쪽.

14) 이 작품에서 친구인 수민은 비중이 높은 인물이지만, 본고의 논의는 지원과 민환, 지혁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수민의 분량은 생략하였다.

을 열게 되었다. 그런데 지원은 몰랐지만 민환은 여자 사원에게는 누구에게나 친절했다. (6) 민환은 스스로를 꾸밈 줄 모르지만 자세히 보면 아름답고 자신에게 순종적인데다 알뜰한 지원이 결혼 상대로 적당하다고 생각했다. 게다가 가족도 없어서 남편만 위하여 살 것이라 믿었다. 첫 번째 인생에서 지원은 민환과 결혼하고 남편에게 휘둘리기만 하는 아내로 살았다. (7) 지원이 돌아간 과거는 민환에게 아직 프러포즈를 받기 전인 시기였다. 지원은 민환으로부터 철저히 이용당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계획을 세웠다. 지원은 민환과 절대 결혼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8) 지원은 이전 생에 민환과 친구 수민이 내연관계였음을 기억하고 두 사람이 함께할 수 있는 자리를 반복해서 만들었다. 그런데 민환은 수민과 내연관계는 되었지만 지원이 결혼 상대로 적합하다는 판단은 물리지 않았다. 지원은 시어머니를 이용하여 두 사람이 결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지원은 시어머니가 순종적인 며느리를 원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일부러 미움을 샀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수민을 예뻐하게 상황을 만들었다. (9) 민환의 어머니가 밀어붙이는 바람에 민환은 결국 수민과 결혼하였다. 지원은 잘 차려입은 모습으로 결혼식에 참석했다. 이를 계기로 지원은 스스로를 꾸미고 다니게 되었다. 더불어 민환과의 관계만 가깝게 지냈던 과거와 달리 다른 사람들과도 친목을 도모하며 지내게 되었다. (10) 지원은 자꾸 자신의 주변을 맴돌며 호감을 표시하는 부장 유지혁을 불편하게 여기며 피해 다녔다. 그러나 지혁은 언제나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리에서 지원을 지켜다. 지원은 다시는 결혼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으나 한결 같은 모습으로 노력하는 지혁에게 결국 마음을 열었다. (11) 사실 지혁은 지원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죽음을 넘어 회귀하였다. 지혁은 오랜 세월 지원을 짝사랑하다가 지원이 남편에게 살해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12) 과거로 돌아온 지혁은 지원에게 전과 다르게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며 연인이 되었다. 그러나 과거의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자기가 또 죽음을 맞이할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지원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모습을 감추었다. (13) 지원은 지혁이 왜 그러는지 금세 알아채고 지혁이 있는 곳을 찾아갔다. 지원은 지혁과 다시 연인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14) 과거의 일은 반드시 일어나지만 대체되기 도 하였다. 그래서 지원과 지혁의 목숨은 민환과 민환의 어머니의 죽음으로 대체된

다. (15) 지원은 지혁과 결혼할 생각은 없었다. 지혁은 그 뜻을 존중하며 결혼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혁의 가족들이 지원을 따뜻하게 품으며 가족으로 받아들였다. 외롭게 지낸 지원은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었고, 결국 두 사람은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다.

이 작품은 소설이라는 장르적 특성으로 말미암아 인물의 심리와 상황에 대해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등장인물과 사건이 다양하고 복잡하게 얽혀 전개되고 있어 분량이 많다. 이에 반해 설화는 핵심적인 내용을 효율적으로 담아낸다. 이러한 장르적 차이로 인해 분량을 놓고 보면 설화와 소설을 견주어 보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설화 <우렁색시>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의 속성과 인물 간 관계의 구도,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관계의 문제와, 이와 관련한 서사 구조 등에 주목해보면 서사의 상동성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설화 <우렁색시>의 서사가 오늘날에도 유효한 관계의 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방증한다 할 수 있다.

사건의 흐름을 순서대로 배열하면 우선, (1)노총각이 우렁색시와 만나게 되는 부분과, 민환이 지원과 만나게 되는 부분을 견주어 볼 수 있다. 소설의 사건들을 시간의 순서대로 재구성하여 평범한 남자와 아름다운 여자가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기 시작하는 부분을 더듬어 보면, 이 인연은 결혼 적령기의 남자가 존재감을 감추고 조용히 지내는 여자를 눈여겨보게 되며 시작된다. 민환은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해서 직장 생활을 하며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남자이다. 회사 사람들과 무난하게 지내는 민환은 어느 날 직장 회식 자리에서 조용히 자리를 지키는 지원에게 평소 다른 사람을 대하던 것처럼 살갑게 말을 붙인다. 지원은 수수한 옷차림에 말수도 별로 없고, 친하게 지내는 동료들도 없는, 속칭 '아웃사이드'였다. 지원은 회사 동료뿐 아니라 가족도 없어 사회적 외톨이이다. 그런 지원에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심을 두지 않는데, 민환이 관심을 보인 것이었다.

그리고 민환은 그 후부터 지원에게 거듭 소소한 친절을 베풀다. 그런데 민환의 속내는 지원에게 호감이 있어서 그러는 것은 아니었다. 우연히 말을 붙여본 것인데 지원이 반응을 보이자 호기심이 생겨서 지원에게 계속 말을 걸게 된 것이었다. 그러다 민환은 일종의 바람기를 발휘해서 지원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표현하게 되고, 애초에 대인 관계에 서툰 지원은 다정하게 다가오는 민환에게 휘말리게 된다. 그러나 민환은 여자라면 누구에게나 친절해서, 지원에게 특별히 더 친절하게 대한 것은 아닌데도 지원과 가까워지게 되자 이 관계를 적당히 이용해볼 생각으로 어울린다. 그리고 민환은 막연하게 결혼을 할 때가 되었고, 결혼을 하게 된다면 순종적인 여자와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터였다. 이는 <우렁색시>에서 노총각이 ‘누구랑 먹고 살지’라고 하는 푸념을 우렁색시가 듣고 ‘나랑 먹고 살지’하고 반응하여 노총각이 우렁색시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는 관계의 흐름과 맞닿는다. 설화에서 이 부분은 노총각이 우연히 그 자리에 있는 우렁색시를 발견하고, 우렁색시가 자기 말에 반응을 하는 것에 호기심을 품고 자기 영역 안으로 들이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는 소설에서 민환이 직장에서 우연히 존재감 없이 지내는 지원을 발견하고 호기심에 다가가는 부분과 맞닿는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의 내용은, (2)노총각이 곁에 둔 우렁색시가 어떤 성향과 능력을 가졌는지 알게 되어 우렁색시를 아내로 선택하는 부분과, 민환이 지원에 대한 탐색의 과정을 거쳐, 지원과의 결혼을 일방적으로 결심하는 부분을 견주어 볼 수 있다. 민환은 지원과 ‘사귀는 사이’가 되는데, 이러한 결정의 기저에는 관계의 발전을 염두에 둔 진지한 호감이 아니라 이 관계로 인해 자신이 손해 볼 것은 없다는 알팍한 계산이 깔려 있다. 민환은 지원처럼 다른 사람에게 관심 없는 사람에게도 자기 영향력이 미칠 수 있다는 일종의 과시와 지원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으로 연인이 되기를 결정한다. 그런데 민환은 가까이에서 지원을 지켜보게 되니 차림새를 수수하게 하고 꾸미

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이 모를 뿐, 지원이 제법 미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게다가 집안일을 잘하는 지원은 민환의 자취방 살림도 대신하는 등, 민환의 어떤 요구도 거절하지 않는 헌신적이고 순종적인 태도를 보인다. 민환은 이런 지원의 모습을 알게 되자, 생활력과 경제력(안정적 직장), 미모, 순종적인 태도까지 모두 갖춰 결혼에 적당한 여자라고 판단하여 결혼을 결심한다. 민환은 내조를 잘해줄 여자를 찾은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민환은 지원을 자신의 인생을 편하게 잘 살게 해줄 '도구'로 대한다 할 수 있다.

반면 지원은 민환과 맺는 관계가 유일하다. 그래서 지원을 위해서라고 하는 민환의 말과 행동을 쉽게 믿는다. 지원은 자기만 민환에게 잘하고 민환으로부터는 받은 것이 없으면서도 그 관계가 일방적임을 판단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는 지원이 스스로를 기만한 것이다. 지원은 민환의 이기적인 태도를 인정하면, 자신이 민환에게 사랑받고 있는 것이 아님을 인정해야 하고, 그러면 관계가 끊어질 것이 두려워 자각하지 못하는 척하고 있다 할 수 있다. 지원은 다시 외톨이가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민환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민환과의 관계가 이대로 괜찮은가에 대한 의구심까지 없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관계에 대한 의구심이 강해서 민환이 결혼을 요구할 때도 기쁜 마음으로 선뜻 승낙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은 민환의 요구를 끝내 거절하지 못하여 결혼에 이르게 된다. 이는 설화에서 노총각이 우렁색시의 생활력과 미모를 보고 부부가 되기를 요구하는 흐름과 맞닿는다.

다음 내용은, (3)우렁색시가 시어머니, 남편과 갈등을 겪게 되는 부분과, 지원이 시어머니, 남편과 갈등을 겪게 되는 부분을 견주어 볼 수 있다. 소설에서 지원의 첫 번째 결혼 생활은 민환의 예상대로 흘러간다. 부부가 되자 민환은 더욱 당당히 지원에게 아내로서 남편을 극진히 섬길 것을 요구한다. 이로 인해 지원의 일상은 오로지 민환을 살뜰하게 보살피는 일들로만 채워져, 민환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도구'로서만 '기능'하게 된다. 지원을

대하는 민환의 태도에는 지원이 도구로 기능하지 못하게 되어 그 쓸모를 잃으면 다른 도구로 대체하면 된다는 오만이 내재해 있다. 민환은 자기 이득을 위해 지원의 친구 '수민'과도 불륜 관계를 유지하는데, 이 또한 지원을 도구로 대하는 민환의 태도를 방증한다.

이 서사에서 지원의 사회적 고립은 민환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지원은 민환이 부당한 요구를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민환과의 관계가 유일하기 때문에 그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지원은 자신이 아닌 민환을 우선하여 살아가며 사회적 고립을 더욱 악화시킨다. 그리고 정서적 보상마저 없이 소모되기만 하며 지쳐가다 몸의 병까지 얻게 된다. 이 관계를 견디며 지원의 손에 남은 것은 결국 인생에 대한 허무와 원망뿐이다. 따라서 지원이 민환에게 적극적으로 불만을 토로하며 대립하지 않았다 해도 이 일련의 과정을 짚어보면, 결혼 이래 지원과 민환의 갈등은 계속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원에게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이 결혼의 또 다른 불행이다. 시어머니는 지원에게 자기를 희생해서 시부모와 남편을 받들라고 명령한다. 시어머니는 가정 내 위계를 정하고, 며느리인 지원을 가장 낮은 자리에 배정한다. 시어머니는 지원에게 다른 식구들을 섬겨야 하는 의무만 짐 지운다. 이는 며느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고마워하는 마음도 없다. 또한 시어머니는 지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사사건건 간섭하고 타박한다. 이로 인해 지원의 삶은 더욱 고단해진다.

이는 설화에서 우렁색시가 남편과 겪는 갈등, 시어머니와 겪는 갈등과 동일한 서사적 맥락을 갖는다. 설화에서는 그 사정이 상세히 드러나지 않으나, 노총각이 우렁색시를 아내로 맞이하는 이유와 우렁색시의 요구를 무시하고 결혼에 이르는 과정을 상기해보면 이 결혼에서 우렁색시가 감당하게 되는 부담이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다. 노총각에게 우렁색시는 '도구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렁색시가 어떠한 삶을 원하는지 중요치 않다. 또한 시

어머니는 우렁색시에게 며느리로서의 의무를 다하기만을 요구할 뿐, 부모로서 자녀를 대하는 애정은 품지 않는다. 이처럼 우렁색시와 지원의 첫 번째 결연은 남편,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점철되어 있다.

다음 내용은, (4)재력과 권력을 겸비한 원님이 우렁색시의 진면모를 알아보는 부분과, 지혁이 지원의 진면모를 알아보고 이성적 호감을 키워가는 부분을 견주어 볼 수 있다. 지혁은 회사 사주의 아들로, 경영 수업을 위해 중간 관리직으로 일하며 지원을 유심히 지켜본다. 지혁과 지원의 인연은 대학 때부터 시작되지만, 지혁은 지원에 대한 호감을 표현하지 못한다. 그러다 지원과 회사에서 만나게 되고, 계속 지켜만 보던 중에 지원이 민환과 결혼하여 시기를 놓치게 된다.

이처럼 지혁은 지원이 첫 번째 결연의 실패를 딛고 인생을 바꾸어보고자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변화를 도모하기 전에 이미 지원의 반짝이는 면을 발견하고 마음을 키워온 남자이다. 지혁은 지원의 외모가 예뻐서가 아니라, 경제적 능력이 있거나, 자신에게 잘해주어서가 아니라, 지원 그 자체에 애정을 가진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지원이 민환을 선택하자 마음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거리를 둔다. 이는 지원의 뜻을 존중하는 태도에서 비롯된 선택이지만, 이로 인해 지혁은 지원과 가까워질 시기와 기회를 놓친다. 지원의 불행은 불행대로 흘러가고, 지혁은 그런 지원의 고단한 모습을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지원의 첫 번째 결연은 지혁에게도 실패한 인연이 된다.

여기에서 '민환과 지혁의 대비'는 '노총각과 원님의 대비'와 겹쳐 볼 수 있다. 민환은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이고, 지혁은 민환이 다니는 대기업 사주의 아들이자 직장상사이다. 민환은 대기업에 다니는 월급으로 생계를 꾸리지만, 지혁은 직장인으로 받는 월급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아도 충분히 부유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민환은 지원에게 희생을 바라는 반면, 지혁은 지원에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내어주며 보살피려 한다. 소설에서 지혁

은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지원에 대한 깊은 애정을 드러낸다.

이는 노총각은 농부이고 원님은 관리라는 것, 노총각은 농사를 지어야 생계를 꾸릴 수 있는 데 반해 원님은 생계를 걱정할 일 없는 부유한 인물이라는 것과 상통한다. 또한 노총각은 우렁색시의 생활력과 헌신적 태도, 미모를 보고 아내로 받아들였지만, 원님은 우렁색시가 무언가를 보여주어서가 아닌 그 존재 자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에 감응하여 아내로 받아들인다.

이처럼 노총각과 민환은 평범한 남자의 대명사이고, 원님과 지혁은 비범한 남자의 대명사이다. 평범한 남자는 어떤 집단의 일원인데 반해, 비범한 남자는 어떤 집단의 우두머리이다. 또 평범한 남자는 경제적 여유가 없는 데 반해, 비범한 남자는 경제적 여유가 넘친다. 마지막으로 평범한 남자는 아내가 가진 것을 받아내려 하는 데 반해, 비범한 남자는 아내가 운택하고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자신이 가진 것을 내준다.

그리고 이 부분에는 지원의 외모도 중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원의 외모는 민환과 지혁에게 각기 다르게 받아들여진다. 민환은 지원이 예뻐서 좋아하지만, 지혁은 지원을 좋아해서 예쁘게 보게 되는 것이다. 민환은 호기심에 지원에게 다가갔다가 가까이에서 지원을 보고는 생각보다 예쁜 외모를 가졌다는 것에 놀란다. 그리고 지원이 가진 여러 장점에 미모까지 추가되자 기뻐한다. 반면 지혁에게 지원의 외모는 호감을 갖게 된 계기가 아니다.

대학 시절, 지혁은 우연히 캠퍼스에서 고양이를 보살피는 지원을 보게 된다. 대학에서의 우연한 마주침이 같은 회사에 다니게 되면서 매일의 마주침으로 변하였고, 그 시간들을 지날 동안 지혁은 먼발치에서 지원을 지켜보며 호감을 애정으로 키워간다. 이처럼 지원의 미모가 민환에게 호소하는 바와 지혁에게 호소하는 바에는 차이가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노총각에게 우렁색시의 미모는 아내로 선택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이지만, 원님에게 우렁색시의 미모는 빛을 먼저 발견하고 쫓아

가 보니 뒤따라 나온 부수적 요인이다. 이때 우렁색시의 빛은 옷으로 감추어도, 어딘가에 숨어도 가려지지 않는다는 점을 의미심장하게 읽어볼 수 있다. 원님의 눈에 우렁색시는 스스로 빛을 내는 귀한 존재로 보인다는 것이고, 이는 외적 요인이 아닌 그 존재 자체에서 가치를 찾았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

이처럼 비범한 남자는 자신이 발견한 귀한 여인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간다. 그 결실에 대한 내용인, (5)원님이 우렁색시를 아내로 맞이하는 부분과, 지혁이 지원을 아내로 맞이하는 부분은 서로 견주어 볼 수 있다. 민환과 지혁 모두 지원에게 먼저 다가간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그리고 지원은 다가서는 상대로부터 한 발 떨어져 거리를 유지하기를 바란다는 점 또한 공통적이다. 그런데 민환의 요구는 지원이 원치 않는 상황을 강요하는 것이 되는 데 반해, 지혁의 요구는 지원이 감춰둔 소망을 실현하게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결정적으로 민환은 지원을 남편과 시어머니를 위해 존재하는 부속품으로 취급하지만, 지혁은 식구들까지 나서서 지원이 외톨이로 살아온 삶을 애잔해 하고 그 자체로 사랑받아야 하는 귀한 존재로 대우한다는 차이가 있다. 지원을 데려다 어떤 대접을 받게 하는지가 결정적 차이인 것이다. 이는 설화에서 우렁색시의 상황과 상통한다. 노총각은 우렁색시를 촌부의 아내로 고달픈 삶을 살게 하지만, 원님은 우렁색시가 원님의 아내로 풍족한 삶을 살게 한다. 즉, 노총각과 원님, 민환과 지혁은 아내에게 무엇을 주고, 어떤 대우를 할 것인가에 대해 다른 답을 내놓는다. 그래서 첫 번째 결연은 지원에게 비극이 되고, 두 번째 결연은 지원에게 행복이 된다. 이는 우렁색시에게도 겹쳐볼 수 있을 것이다.

설화에서는 이 다음으로 노총각이 울분에 휩싸여 죽고, 그 분노가 새로 화하여 우렁색시에게 날아가는 내용이 나타난다. 설화와 소설은 여자가 첫 번째 남편과 관계가 끝나게 되는 시점에 차이가 있다. 설화에서는 노총각이 울분을 이기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는 순간이 관계가 끝나는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즉, 우렁색시가 원님의 아내가 되는 순간이 아니라, 노총각이 우렁색시를 되찾을 수 없다고 단정하고 대항을 포기하는 순간이, 노총각과 우렁색시의 관계가 끝나는 지점이라는 것이다.<sup>15)</sup>

반면 소설에서는 지원이 민환에게 배신당해 죽음을 맞이하는 지점에서 지원과 민환의 부부 관계는 청산된 셈이 된다. 부부 관계는 배우자와 관계를 이어나갈 의지가 있어야 지속되는 것이다. 민환은 지원을 이용해 보험금을 탈 계획을 세우며 지원과의 관계를 놓는다. 또 지원은 민환의 계획을 알게 되어서야 민환과의 관계를 놓는다. 그렇게 민환과 지원의 부부 관계가 종결되고 우연히 과거로 회귀하게 된 지원은 민환과의 결혼을 거부한다. 이로 인해 민환이 지원을 아내로 맞이하지 못한 것에 미련을 보이기는 하지만 지혁에게 지원을 빼앗긴 데 대한 울분과 분노로 죽음에 이르게 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소설에서는 첫 번째 결연과 두 번째 결연을 대비하여, 첫 번째 결연이 지원을 얼마나 불행하게 하였는가, 두 번째 결연이 지원을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가를 보여준다. 그리고 지원의 입장에서 이 서사를 보게 된 독자 또한 지원과 마찬가지로 첫 번째 결연은 나쁘고, 두 번째 결연은 바람직하다고 받아들여지게 된다. 이러한 차이가 왜 발생하고, 어떤 서사적 의미에 도달하게 하는지 3장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 3. ‘두 번째 결연’에 대한 서사적 의미의 차이

설화 <우렁색시>와 소설 <내남결>은 한 여자를 둘러싼 두 남자의 대

15) 이처럼 자포자기하는 행동은 <우렁색시> 설화의 노총각이 갖는 특징이다. 권력자에게 아내를 빼앗긴 남자는 권력자와 대결을 해서 되찾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설화 <우렁색시>를 다른 설화 작품들과 비교한 논의를 참고할 수 있다. 김정희 (2019), 위의 논문.

립이 서사의 핵심이고, 여자와 평범한 남자가 이룬 첫 번째 결연은 파탄으로, 여자와 비범한 남자가 이룬 두 번째 결연은 지속적으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바꾸어 말하면, 두 작품이 부부 관계의 다양한 문제들 가운데에서도 동일한 계열의 문제를 다루는 서사를 골자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작품은 첫 번째 결연과 두 번째 결연에 대해 향유집단이 정반대의 평가를 내리도록 유도한다. 이러한 차이가 장르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화에는 다양한 결말이 있고, 이는 소설 역시 마찬가지로이기 때문에 각 장르 내에서도 관계의 스펙트럼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본고에서는 이에 대해 이 문제를 바라보는 향유집단의 시대적 소망이 다르다는 관점에서 접근해보고자 한다.

우선, 우렁색시/지원의 미모가 갖는 특별한 힘의 역할과 영향력에 대한 설정이 설화와 소설이 다르다는 점에서 향유집단이 이 서사에 바리는 바의 차이를 포착해 볼 수 있다. 우렁색시의 아름다운 외모는 노총각이 우렁색시를 아내로 선택하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한다. 또한 우렁색시가 원님과 인연을 맺게 되는 부분에서도 우렁색시에게서 뻗어나오는 서기가 주요한 역할을 한다. '빛'이 시각적인 감각과 관련이 있고, 노총각이 앞서 우렁색시의 아름다움에 반해 아내로 맞이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선행 연구에서는 대체로 원님 또한 노총각과 마찬가지로 우렁색시의 아름다움에 매료된 것이라고 논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설화에서 우렁색시의 아름다움은 우렁색시를 무력한 존재로 바라보게 한다는 것이다. 즉, 여성의 아름다움에는 귀한 가치가 있어 이를 발견한 남자들에게 소유욕을 불러일으키는데, 이 소유욕은 우렁색시의 의도와 무관하게 만들어진다. 우렁색시가 노총각을 원하는지, 또는 원님을 원하는지는 이 설화를 이야기할 때의 관심사가 아니다. 우렁색시의 미모는 우렁색시가 아니라 우렁색시를 탐내는 남성 주체의 욕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설화는 우렁색시보다, 우렁색시를 빼앗긴 남자의 처절한 심정과 우렁색시를 빼앗은 남자의 무도한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우렁색시의 외모가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를 강조하게 되면, 우렁색시는 상대의 욕망을 자극하거나 충족시키는 도구적 존재로 규정되게 된다는 것이다. 설화는 노총각을 우렁색시를 빼앗겨서 슬퍼하는 인물로, 원님을 빼앗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인물로 형상화하며 두 남성이 일련의 사태에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보여준다. 그런데 정작 노총각에 대한, 원님에 대한 우렁색시의 목소리는 감추어놓고 있다. 우렁색시는 원님을 피하기 위해 숨지만, 원님에게 들켜서 ‘데려가지고’ 난 후에는 상황에 순응한다. 앞서 노총각과의 결연도 마찬가지로이다. 우렁색시는 노총각에게 아직 때가 안 되었다고 하지만, 노총각에게 ‘붙잡혀지고’ 난 후에는 상황에 순응한다.

이처럼 우렁색시는 결연 과정에서 자기 의견을 말하지만, 노총각이나 원님은 이를 못 들은 것처럼 이후의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 그리고 노총각도, 원님도, 자기 아내가 된 우렁색시에게 더 이상 자기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 우렁색시가 말할 수 없는 능력이 없어서 말하지 않았다고 보다,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주체로 대우받지 못해서 목소리를 내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설화는 남성 욕망의 대상으로 도구화되어 목소리를 잃고 침묵 당하는 여성의 비극적 현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렁색시는 남성들에게 ‘가져야 할’ 대상일 뿐, 무엇을 원하는지 이해해야 할 존재가 아니다. 설화가 이러한 강조점을 갖는 이유는 여성이 스스로의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당대의 사회상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우렁색시의 미모는 우렁색시 자신의 가치를 높이거나 존중하게 하는 요인이 되지 못하고, 남성에게 휘둘릴 가능성만 키울 뿐이다. 이처럼 여성의 미모는 남성과의 관계에서 약자가 되게 하는데, 주

체가 스스로 통제하거나 조절할 수 없는 부분이기까지 하므로 여성을 한없이 무기력하게 한다. 적어도 여성에게는 아름다워서 좋을 일이 없다.

설화에 비해 소설에서는 여성의 미모가 발휘하는 영향력을 축소시킨다. 지원은 인간관계에서 적절한 보상을 받아본 경험이 없어서 인간관계를 의도적으로 멀리한다. 그래서 사회적 존재감을 스스로 지운다. 지원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흐릿한 존재감으로 살아가는데, 이로 인해 고립감은 깊어만 간다. 그러다 우연히 지원은 자신에게 관심을 갖는 유일한 남자, '민환'을 만나게 되어 그 관계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된다. 소설은 이런 태도로 살아갔을 때 어떤 비극적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가를 지원에게 경험하게 하며 경각심을 깨운다. 깨어난 지원은 지난날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달라지려 노력한다. 스스로의 외모를 가꾸는 노력도 그 일환이다. 외모의 변화는 대인관계에서 수동적이던 태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지원은 외모를 드러낸 것처럼 자기 의견을 드러내고 주장하며 대인관계에도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게 된다. 달라진 지원을 보는 주위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진다. 지원의 외모는 그러한 태도를 더욱 당당하게 한다. 이처럼 지원은 스스로 존재감을 키워가는 인물로 그려진다.

소설은 외모에 대해 지원이 마음 먹으면 드러낼 수도 있고, 바꿀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킨다. 외모의 회복을 통해 주체성을 회복한 지원은 민환과의 관계에서도, 지혁과의 관계에서도 주도권을 행사한다. 지원은 더 이상 이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변화를 주도해나가는 존재가 된다. 이런 지원에게 지혁과의 두 번째 결연은 자기 행복을 추구하며 자신을 위해 내린 선택이 된다. 아름다움의 발현은 지원이 스스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징후이다. 소설은 지원이 아름다움을 되찾는 일을 통해 여성이 자신의 외모를 가꾸는 일의 의미와 중요성을 짚고 있다. 적어도 소설에서 여성의 아름다움은 남성의 욕망으로부터 휘둘리게 하여 주체를 곤란에 빠트리는 요인이 아니다. 지원은 아름다움을 가꾸어 존재감을 회복하고, 고립감을 해소한다.

이런 관에서 여성의 미모는 능력이 된다. 여성의 미모가 왜 여성의 한계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우렁색시가 못한 문제 제기를 지원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두 번째 결연은 지원에게 잘된 일이다. 두 번째 결연은 지원이 얼마나 빛나는 존재인지를 드러내 주위 사람들로부터 애정과 축복을 듬뿍 받게 하기 때문이다. 우렁색시가 원님과 이룬 두 번째 결연이 비극으로 판단되는 것과 상반된다. 즉, 소설에서는 두 번째 결연을 통해 여성이 본연의 아름다움을 되찾는 일이 삶에 얼마나 큰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강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두 번째 결연을 통해 도달하는 설화와 소설의 서사적 의미가 대비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설화와 소설은 첫 번째 결연의 배우자인 평범한 남자에 대해서도 정반대의 판단을 내놓는다. 이 역시 두 번째 결연의 서사적 의미와 관련된다. 설화에서 노총각은 가진 것이 없고 나약할 뿐, 악하지는 않다. 그런데 소설에서 노총각에 견줄 수 있는 인물인 민환은 나쁜 인물이다. 민환은 지원이 ‘고아’이고 ‘외톨이’라서 친절 부모나 친구들에 들일 정성까지 남편에 만 쏟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게다가 지원은 경제적 능력과 생활력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발견하지 못했지만 ‘미모’까지 겸비하고 있다. 민환은 지원이 가진 모든 능력과 제반 상황이 남편을 잘 ‘모시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지원을 아내로 선택한다. 민환이 지원을 선택하는 데는 이처럼 이기적인 계산이 포함돼 있다. 앞서 논의한 것처럼, 노총각 역시 우렁색시를 ‘아내로서 적합한 자질’을 갖추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아내로 맞이한다. 설화에서는 노총각의 금기 위반을 관계 실패의 결정적 원인으로 나타내지만, 소설에서는 이러한 이기적 태도를 관계 실패의 결정적 원인으로 지목한다.

소설은 평범한 남자의 일방적 태도에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셈이다. 남자가 아내를 선택할 때, 아내를 위한 마음이 있는가를 살피게

하고, 이런 마음이 없는 남성의 이기심을 악한 마음과 연관지어 '절대악'의 표상으로 형상화한다. 평범한 남자는 자기 위주로 판단하여 여자가 자신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 선택한다고 볼 수 있다. 두 작품의 서사는 이러한 지향성을 가지고 배우자가 될 여자를 대하면 그 관계는 비극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만, 소설에서는 평범한 남자가 악한 인물로 그려지기 때문에 첫 번째 결연은 헤어져야 할, 헤어지는 것이 당연한 관계로 평가되도록 한다. 즉, 민환의 '이기심'을 극대화하여 아무도 민환을 응원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반면 설화는 노총각에 내재된 '이기심'을 적당히 가리어 노총각이 아내를 빼앗기는 상황에 안타까움을 갖게 한다.

두 번째 결연의 배우자인 비범한 남자에 대한 판단 역시, 설화와 소설이 상반된다. 설화에서는 우렁색시를 데려가는 강압적 태도가 부각되며, 민가의 여성을 자기 마음대로 탈취하는 무도한 남성 인물로 판단된다. 그런데 소설에서는 이를 지원의 성향에 맞춘 구애로 탈바꿈한다. 지혁은 순정이 있는 남성이다. 지원이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자기 존재감을 감추려 할 때도 지원이 가진 빛을 알아봐 준 유일한 남성이다. 그런데 애뜻한 마음으로 지켜보기만 하면 그 마음은 상대에게 전달되지 않는다. 전달되지 않는 마음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지혁은 지원을 깊이 사랑하지만, 지원은 이를 모른 채 비극으로 생을 마감한다.

두 번째 기회에서 지혁은 행동 방식을 바꾸기로 한다. 지원이 경계심이 있고 조심스러운 성격이라는 것을 알아서 다가가지 않은 것이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는 역사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지원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 다가가야 하고, 마음을 표현해야 한다. 지혁은 더 이상 남자를 만날 생각이 없어 멀어지려는 지원에게 포기하지 않고 구애한다. 지원이 숨어도 일관된 애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게다가 지혁은 경제적 능력과 사회적 영향력을 겸비하였고, 외모의 아름다움에 현혹되지 않고 그 존재 자체의 빛남을 발견할 줄 아는 안목까지

갖춘 남성이다. 지혁은 지원에게 정서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부족함 없이 줄 수 있는 배우자가 되려 한다는 각오를 보여준다. 지혁은 첫 번째 결연에서 갖게 된 지원의 두려움을 꾸준함으로 다독인다.

설화에서 권력을 가진 원님은 두려움의 대상이지만, 소설에서 권력을 가진 지혁은 선망의 대상이다. 그 힘을 아내를 지키는 데 발휘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기 때문이다. 이런 남성과의 결연은 지원의 행복을 예견하게 한다. 이로써 설화가 ‘노총각’을 중심으로 보면 비극이지만 ‘우렁색시’를 중심으로 보면 관점을 달리할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된다. 소설이 지혁을 통해 부와 힘을 겸비한 비범한 남자(두 번째 남자)도 서사에서 ‘악역’이 아닌 ‘선역’을 담당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소설은 첫 번째 결연의 배우자는 악한 남성으로, 두 번째 결연의 배우자는 착한 남성으로 형상화하며, 두 번째 결연의 당위성을 확보한다.

물론, 이 외에도 두 번째 결연의 당위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서사적 장치 중 하나는, 지원의 ‘회귀’이다. 지원의 첫 번째 결연은 지혁과의 현재에는 실현되지 않은 과거의 가능성이다. 그래서 지혁과의 두 번째 결연은 지원의 이혼을 전제하지 않는다. 현재의 삶에서 지혁은 첫 번째이자 유일한 남편이다. 소설의 이러한 설정은 윤리적 논쟁을 피하게 한다. 그리고 오로지 지원과 지혁의 행복에만 관심을 두게 한다. 또한 소설은 지원을 통해 현실에서는 이를 수 없는 소망, 부자에, 잘생기고, 능력 있고, 자신을 아껴주기까지 하는 남자와의 결연에 대한 소망을 충분히 충족시키도록 하며, 이 서사를 접하는 향유집단의 지지까지 얻어낸다.<sup>16)</sup>

이 작품은 현대에 여성들의 든든한 지지를 받고 있다. 이 작품을 통해 소망이 대리 충족되는 바가 크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소망의 충족이 가능한 이유는, 지원이 스스로 변화를 이루어냈고, 민환이 앞에서

16) 로맨스 소설의 주 독자층은 여성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보거나 뒤에서 보거나 어느 관점에서 보더라도 한결같이 악인이며, 지력이 힘으로 상대를 휘두르려 하지 않고 보살피려 하기 때문이다. 설화의 두 번째 결연은 향유집단에 침해당하고도 저항할 수 없는 평범함의 무력감을 상기시키지만, 소설의 두 번째 결연은 향유집단에 소망이 성취되는 기쁨을 알게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4. 결론

본고에서는 설화 <우렁색시>와 소설 <내 남편과 결혼해줘>를 비교 분석하여 두 작품의 서사 구조와 의미 맥락에서 상동성을 확인하였다. 두 작품은 관계의 구도와 서사 구조, 다루고 있는 부부 관계의 문제 등에 초점을 맞추고 볼 때, 동일한 계열에 속하는 서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두 작품의 서사는 평범한 남자와 아름다운 여자, 비범한 남자가 등장한다는 점, 아름다운 여자가 평범한 남자의 아내가 된다는 점(첫 번째 결연), 아름다운 여자가 평범한 남자와 헤어지고 비범한 남자의 아내가 된다는 점(두 번째 결연)이 공통적이다. 그리고 그 과정은 (1)여자와 평범한 남자의 만남, (2)여자와 평범한 남자의 탐색, (3)여자와 평범한 남자의 결연, (4)여자와 시어머니, 여자와 남편의 갈등, (5)여자와 비범한 남자의 만남과 결연, (6)여자와 평범한 남자의 이별, 여자와 비범한 남자의 결연 확정으로 정리할 수 있다.

다만 시대의 소망이 어느 인물의 입장을 지지하고 공감하느냐에 따라 인물과 사건을 서술해나가는 전략에 차이가 나타나고, 그러면서 향유층에 전달하는 서사적 메시지 역시 달라진다. 설화 <우렁색시>는 평범한 부부가 권력자의 탐욕으로 인해 원치 않는 이별을 하게 되는 '관탈민녀'형 비극으로 평가되고 있다. 설화는 가장 비극적인 인물인 노총각으로 시작해서

노총각으로 끝을 맺고 있다는 점, 노총각과 우렁색시의 갈등보다 원님이 우렁색시를 데려가는 것이 헤어짐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노총각의 처절한 패배감에 전도되어 그 비극성에 주목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우렁색시가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살펴보면 적어도 우렁색시의 입장에서는 이 결말을 다르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렁색시는 노총각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지만, 이는 우렁색시의 삶을 좌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노총각의 죽음에 거리를 두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우렁색시는 원님의 아내가 되어 있는 상황에 대해 침묵한다. 노총각과 원님이 아내가 된 우렁색시에게 말할 기회를 주지 않기도 하지만 두 번째 결연은 우렁색시에게 굳이 벗어날 필요가 없는 삶을 살게 하기도 한다. 즉, 우렁색시가 노총각의 죽음에 거리를 두는 것은 소극적으로 삶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여성에게 '두 번째 결연'을 허용하지 않는 당대의 규범과 윤리의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선택이다. 설화 <우렁색시>의 구연자가 대부분 여성이라는 점, 우렁색시의 삶이 이전과 비교해서 덜 고단해졌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여성의 삶이 덜 불행해지기를 바라는 소망이 감추어져 있는 결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우렁색시가 두 번째 남편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당대의 사회상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고, 실현되기를 기대하는 소망을 감추기에 용이한 상황 속으로 기꺼이 숨어 들어가는 여성들의 의도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는 해석도 덧붙여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보다 적극적으로 여성의 소망을 실현해내는 소설과 대비된다. 웹소설 <내 남편과 결혼해줘>에서 두 번째 남편의 '사랑'과 여자가 두 번째 남편 덕분에 삶의 고단함에서 벗어나 비로소 찾게 되는 행복 등이 서사화되며 소망은 구체적인 상을 갖는 실재가 된다. 또한 소설은 수동적이던 여성 인물이 스스로 주체성을 회복하도록 한다. 여성 인물을 이대로 살아서

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절실하게 깨닫고, 스스로의 행복을 기획하고 성취하는 진취적 인물로 변모시키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두 번째 결연'은 여자가 자신의 욕망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결과라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서사 비교의 시도로 설화적 인물의 한계와 소설적 인물의 주체성을 언급하게 되다 보니, 궁극적으로 설화보다 소설이 낫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 아닌가 하는 혐의를 받곤 한다. 그런데 본고에서는 설화를 통해 다룬 관계의 문제가 너무 중요해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포착하고, 이러한 시도로 오늘날의 작품들이 고전서사의 자장 안에 포섭될 수 있음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다. 그럼에도 시대상이라고 하는 부분을 간과할 수 없다. 과거와 오늘날은 추구하는 가치와 지향점 등에서 강조점이 달라지고, 이러한 실상이 작품에 반영되어 각기 다른 서사적 의미에 도달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참고문헌

- 성소작, 『내 남편과 결혼해줘』 총 188화, 출판사 Ara.N, 연재 기간: 2020.02.04. ~ 2021.10.26. 네이버 시리즈 제공.
- 『한국구비문학대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1988.
- 김근태, 「<우렁이 색시> 각편의 유형과 의미」, 『문학치료연구』 14, 한국문학치료학회, 2010, 9~45쪽.
- 김정희, 「남녀관계의 위기와 지속에 대한 서사지도 구축과 문학치료 활용 연구」, 건국대 박사학위논문, 2018, 1~319쪽.
- 서은아, 「현대 고부갈등 해결을 위한 <우렁색시>의 문학치료적 가능성 탐색 : 영화 <울가미>, mbc <현장기록: 사람잡은 시집살이>와의 비교를 통하여」, 『국어교육』 121, 한국어교육학회, 2006, 469~500쪽.
- 이동희, 「<우렁색시>의 문학치료적 해석: 설화의 현대적 변용에 나타난 남녀 관계 형성의 의미를 중심으로」, 『독서치료연구』 7(1), 한국독서치료학회, 2015, 117~128쪽.
- 이명현, 「고전문학과 문화콘텐츠의 접점과 횡단」, 『고전과 해석』 39, 고전문학한문학연구학회, 2023, 7~32쪽.
- \_\_\_\_\_, 「고전서사의 경계 확장과 요괴 서사-웹툰에 나타난 요괴의 컨버전스를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47, 경희대 인문학연구원, 2021, 45~70쪽.
- \_\_\_\_\_, 「웹툰의 고전서사 수용과 변주」, 『동아시아고대학』 52, 동아시아고대학회, 2018, 107~134쪽.
- 이성희, 「<수탉이 된 나무꾼>과 <새 변신형 우렁색시>의 부부서사 비교 연구」, 『문학치료연구』 65, 한국문학치료학회, 2022, 93~121쪽.
- \_\_\_\_\_, 「비극형 우렁색시 설화의 전설적 특성과 현실 인식」, 『구비문학연구』 64, 한국구비문학학회, 2022, 123~161쪽.
- 이수자, 「<우렁색시>형 설화의 연구 -변이양상을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7, 이화어문학회, 1984, 157~183쪽.
- 정운채, 「<단군신화>의 웅녀를 통해 본 <누드모델>의 마리안느」, 『영화외문학치료연구』 4, 서사와문학치료연구소, 2010, 329~345쪽.
- 정혜경, 「고전서사를 활용한 콘텐츠 동향과 기획」, 『우리문학연구』 57, 우리문학연구회, 2018, 119~159쪽.
- 현영희, 「한중 <우렁각시> 유형 설화의 현대 매체 변용 양상과 특성」, 『중국문화연구』 62, 중국문화연구학회, 2023, 157~186쪽.

ABSTRACT

The narrative meaning of the 'second bond' seen through the comparison of narratives between the folk tale "The Snail Bride" and the web novel "Marry My Husband"

Kim, Juong-hee

This thesis examines the narrative divergences in the concept of 'second marriage'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folk tale "The Snail Bride" and the web novel "Marry My Husband." Both narratives exhibit a common structural configuration, comprising a beautiful woman, an ordinary man, and an extraordinary man. The woman initially enters into a marriage with the ordinary man (her first marriage) and subsequently transitions to a marriage with the extraordinary man (her second marriage). The progression of events in both narrative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he narrative structure of both tex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initial encounter between the woman and the ordinary man, (2) the exploration of their relationship, (3) the marriage, (4) the emergence of conflicts between the woman and her mother-in-law and/or husband, (5) the meeting and union of the woman with the extraordinary man, and (6) the separation from the ordinary man and confirmed union with the extraordinary man.

"The Snail Bride" and the web novel are also connected in terms of their underlying semantics. "The Snail Bride" is regarded as a tragic account of an ordinary couple who are compelled to endure an involuntary separation as a consequence of the avarice of a powerful individual. This is the narrative meaning of the work if we focus on the fact that Governor takes Snail Bride away from the perspective of an old bachelor. However, an analysis of the Snail Bride narrative reveals that there is no instance in which the protagonist, who has become Governor's wife, explicitly rejects the life she has been forced into. If we consider her attitude toward

her second husband to be latent in this part, we can make a different assessment of whether this narrative is a tragedy.

The web novel “Marry My Husband” provides further insight into the concept of happiness in “The Snail Bride”. This is because the narrative of the ‘love’ between a woman and her second husband is constructed in a way that portrays the woman’s happiness in escaping the drudgery of her life thanks to her second husband. Furthermore, the novel “Marry My Husband” outlines a narrative arc wherein passive female characters regain their autonomy. The female characters are transformed into enterprising individuals who are driven by a desperate need to live a life that aligns with their true selves. They devise strategies and pursue their own happiness with determination. The ‘second marriage’ can be seen as the result of the woman’s recognition and acceptance of her own desires. In conclusion, the folk tale “The Snail Bride” and the web novel “Marry My Husband” share not only structural homology but also a narrative semantic context. “The Snail Bride” is an example of a contemporary web novel that emphasizes the interpretive field of “The Snail Bride”.

**Key Words** The Snail Bride, Marry My Husband, Web novel, second bond, Narrative comparison

논문투고일: 2024.07.21. 심사완료일: 2024.08.03. 게재확정일: 2024.08.08.
--